

도내 안전사고 사망자, 3년 연속 줄어

올해 1분기 전년 대비 13% 감소... 화재·자살분야 사망자 각각 71%·21% 감소

도내 안전사고 사망자가 2014년 이후 3년 연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4대 분야(교통, 화재, 자살, 감염병) 안전사고 사망자 수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 1분기 평균 218명에서 올해 1분기 158명으로 60명(28%)이 잠정 감소했으며, 올해 1분기도 지난해 같은 기간 181명과 비교해서 13%인 23명이 잠정 감소했다.

분야별로는 화재와 자살 사망자가 각각 71%와 21% 감소하였으며, 교통과 감염병 분야는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내 자살사고 사망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5년 1분기와 비교해서는 29% 감소했다.

전북도는 올해 4대 분야 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지난해 대비 73명 감축하기로 하고, 21개 이행과제에 대해 33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한편, 전북도는 20일 도청에서 '제4차 안전사고 사망자수 감축 추진 TF'를 개최하고 분야별 이행과제에 대한 1분기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자살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에 대한 중점 논의를 이뤘다.

이날 회의에서는 4대 분야 사망자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자살분야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시군 안전총괄부서와 자살예방 담당부서,



하트세이버 인증서 수여식 개최

송하진 지사는 20일 도청 3층 중회의실에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킨 공로로 소방공무원과 일반인, 경찰 등에게 배지와 인증서를 수여했다.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관계자가 함께 참석한 가운데 애로사항 등을 서로 공유하고 자살사고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도내 자살사망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자살과 관련한 예방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2월 도와 시군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노인복지관 등과 자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독거노

인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독거노인 사회관계망 형성을 통한 은둔형 독거노인 발굴 등 자살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간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심리치유 등 어르신에게 특화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공근로사업 참여 독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 등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자살고위험군을 보다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

책도 논의됐다.

이밖에도 시군별로 자살사망자 수 편차가 크고, 일부 시군은 사망률이 해마다 등락을 반복하는 현상이 나타나며 따라 앞으로는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지역별 취약요인을 분석하여 특성에 맞는 최적의 안전개선사업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전 시군이 공유할 계획이다.

이현용 도민안전실장은 "도민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안전전북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23~29일 체육주간 다양한 체육행사

도민체전·FIFAU-20 월드컵 트로피 투어 등 개최

전북도는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 제55회 체육주간을 맞아 다양한 체육행사를 갖는다.

체육주간은 4월 마지막 주간에 실시된다.

55회째를 맞는 올해 체육주간에는 '우리 함께 운동해요, 건강한 대한민국의 시작입니다' 표어를 중심으로 도민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도민들이 체육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다양한 스포츠 관련 행사가 개최된다.

전북도에서는 체육주간에 2017 남원코리아오픈 국제틀러대회, 2017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배 전국카누대회, 제21회 마인산컵 전국탁구대회, 제14회 춘계 전국 휠체어펜싱선수권대회 등 전국 규모의 대회를 개최하여 도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2017 전북어

트신생활체육대회 등 다양한 생활체육 행사를 통해 동호인 등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적극 추진한다.

또한, 28일부터 30일까지 부안스포츠파크운동장에서 도민화합 축제 한마당인 제54회 전라북도민체육대회를 개최해 도민 건강증진 및 도민화합 도모와 체육 보급을 도모한다.

아울러 시군에서도 다양한 체육행사가 열려 도민들이 체육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특히, 한 달 정도 밖에 남지 않은 FIFA U-20 월드컵 코리아 '트로피가 온다' 행사를 개최한다.

오는 29일 고사동 중앙실업관장에서 송하진 지사와 김승수 전주시장, 차범근 부위원장 등이 참석해 한마음으로 성공적 대회 개최를 기원할 계획이다. /인재용 기자

도내 흡연율·음주율, 전국 평균 비해 낮아

경기 실천율 전국보다 낮아

도내 흡연율과 음주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전국 모든 기초자치단체(보건소)에서 실시한 '2016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북도 현재 흡연율은 2008년 22.8%에서 20.1%로 떨어졌고, 남자 현재흡연율은 44.4%에서 38.2%로 6.2% 내려갔으며 전국 중앙값(39.1%)보다 낮은 수준이다.

월간음주율은 2008년 47.8%에서 51.4%로 3.6% 늘어 8년새 지속적인 상승추세이나 전국 중앙값(57.4%)보다 낮은 수준이다.

중등도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은 전년 대비(21.0%) 증가해 25.1%로 나타났으며 전국 중앙값(21.9%)보다 높은 반면 경기실천율은 하향세로 2008년 48.8%에서 33.7%로 15.1% 줄었으며 전국 중앙값(38.4%)보다 낮았다.

우울감 경험율은 8년새 6.0%에서 6.2%로 소폭 상승했고, 스트레스 인지율은 31.4%에서 23.1%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의 건강관련 지표는 흡연율, 음주율, 신체활동 실천율, 스트레스 인지율 등이 2008년 대비 개선됐고 전국보다 양호한 수준이었으나, 경기 실천율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재용 기자

18~25일 '기후변화주간' 도내 다양한 행사

전북도와 전북기후·환경네트워크는 22일 '지구의 날(4.22일)'을 맞아 18일부터 25일까지 일주일간을 제9회 기후변화주간으로 지정하고, 저탄소 친환경생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로 활용하고자 도내에 다양한 행사를 추진한다.

올해는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한 7개 공공기관의 소속 직원들이 탄소 포인트제 가입과, 상호간에 에너지 진단 컨설팅 등 온실가스 줄이기에 노력하는 업무 협약을 가졌다.

특히, 도청 앞 광장에 전기자동차 제작사 4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전기자동차와 전기이륜차 전시회 등을 개최하고, 구매방법과 절차, 충전시설 리플릿 배포 등 홍보활동도 병행했다.

아울러, 시군에서도 공공기관·녹색아파트 소동행사와 '승용차 없이 출근하기' 등을 추진하고 기후변화 체험부스 운영 등 온실가스 줄이기 캠페인과 기후변화 사진 전시회 등 행사가 열릴 계획이다. /인재용 기자

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성과평가 '최우수'

전북도는 20일 보건복지부 주관,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워크숍에서 '2016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성과평가' 전국 17개 시도 중 '최우수' 기관(전국 1위) 표창을 수상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 평가세부내용은 '지역중심의 맞춤형 사회서비스 확충 및 공급기반 내실화'에 비전을 두고 지역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 및 품질향상, 지자체의 포괄보조 운영 자율성 및 책임성 제고,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협조체계 강화를 목표로 16개 지표에 대해 진행했다.

전북도는 지표별 전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로써, 특히 '품질인증제 시범운영' 등 도민 맞춤형 서비스 및 품질향상을 위한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인재용 기자

'자율상권 선도구역 지정' 선제적 대응 필요

정부, 연내 5곳 시범지정 예정... 전북연구원, 구역 발굴 기본계획과 조례 등 4가지 과제 제안

정부가 지역 영세상인들의 생계수단 및 지역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자율상권법' 제정과 자율상권 선도지역 지원사업의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어 전북도에서도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연구원은 이슈브리핑 '영세상인 동지 내몰림 방지와 특화상권 활성화 대응방안'을 통해 최근 중소기업청이 추진할 예정인 '자율상권법' 논의 동향과 타지자체 지역상권 상생협력 사례를 소개하고, 지역 전통상권 보호·유지를 위해 자율상권 지정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했다.

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에 따르면 '자율상권법'이 통과되면, 중소기업청은 자율상권 선도구역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특성별 육성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며, 연내에 5곳 지정 계획이다.

이슈브리핑은 '자율상권법' 제정과 특화상권 육성,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전북 대응방안으로 자율상권구역 지정 가능 구역 발굴, 자율상권 기본계획 수립 및 조례 제정, 자율상권 운영 추진체계 구축, 상생협력협의체 구성 등 네 가지 과제를 제안했다.

먼저 정부 자율상권구역 지정에 대응하기 위한 지정 가능 구역을 발굴하고, 지정을 받고자 하는 상권을 예비자율상권구역으로 선정해 지역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자발적, 자율적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단위에서 자율상권구역 운영을 위

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역공동체 육성 및 건전한 골목상권 조성을 위해서는 지역차원의 정책 추진체계 구축 및 구성이 필요하며, 지역별 기본계획-자율상권위원회-자율상권조합 등이 핵심 구성요소가므로 상생협력위원회와 사업을 운영할 상생협력상권조합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역 상생협력 공감대 형성을 위한 상생협의체 운영을 통해 지역의 정체성의 붕괴 및 지역경제활동의 근간이 되는 영세상인들의 몰락을 방지하고 지역의 정체성 및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유지·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인재용 기자

전주시 공고 제2017-714호

전주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및 용도지구) 결정(변경) 공람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4조, 제37조에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 시설 결정의 실효에 대비하여 설치 불가능한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으로 인한 용도지구 변경을 위하여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및 용도지구) 결정(변경) 주요 내용
 - 용도지구 변경 결정 25개소 (미관지구22개소, 고도지구3개소)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13개소 (도로8개소, 운동장1개소, 녹지2개소, 박물관1개소, 학교1개소)
2. 공람기간: 2017. 4. 21 ~ 2017. 5. 8
3. 공람 장소 및 의견 제출처
 - 전주시청 생태도시계획과(063-281-2427), 완산구청 건설과(063-220-5487), 덕진구청 건설과(063-270-6488)
4. 도시관리계획조사 및 도면: 실용생략(공람장소에 비치)
5. 공람내용: 도시관리계획서, 계획설명서, 결정조서 및 도면 등
6. 기타사항: 공람장소에서 열람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내 우편, 팩스(063-281-2615), 이메일(jaeman71@korea.kr) 등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4월 21일 전주 시장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